

“암울했던 전두환 정권때 프로야구로 한풀이”

시민 품으로 돌아온 무등경기장
철거 위기 딛고 전면 리모델링 완공
‘해태 왕조 시절’ 지역민 함께 호흡
“아버지 손 잡고 오던 추억 생각나”
유소년·사회인야구 성장 발판 기대

‘공포의 검빨(검정 빨강) 유니폼’, ‘애환 담긴 목포의 눈물’

과거 호남을 연고로 한 프로야구단 해태 타이거즈(현 기아 타이거즈)의 전성기를 함께 한 무등경기장이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80·90년대 선동렬·이중범 등 한국 프로야구의 간판 선수들과 호흡을 함께 했던 시민들은 “무등경기장은 암울했던 시절을 이겨낼 수 있게 해준 고마운 곳”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19일 광주 임동에 위치한 무등경기장이 ‘재개장 기념행사’와 함께 종합 경기장으로 거듭났다. 지난 2018년 전면 리모델링 공사 이후 5년 만이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이정선 광주시교육감·나훈광주야구협회장·초등부 야구선수·학부모·지역 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1부 개장행사·2부 초등부 이벤트 경기 순으로 진행됐다.

오랜만에 무등경기장을 찾은 시민들은 함께 온 자녀에게 한국시리즈 우승을 밥 먹듯 하던 ‘해태 왕조’ 시절을 설명하는 등 어릴 적 느꼈던 설렘을 되새겼다.

이벤트 경기에 자녀가 출전한 구희원(49)씨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찾았던 무



강기정 광주시장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야구협회 관계자, 초등 야구선수와 학부모 등이 19일 광주 북구 무등야구장에서 재개장 이벤트로 열린 수창초와 학강초의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등야구장에서 아들의 경기를 보니 감회가 새롭다”며 “당시 아버지가 야구 규칙 등을 설명해 주셨는데,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어렵잖이 이해가 된다. 세월의 흐름을 느낀 날이다”고 미소를 지었다.

주민 이모(61)씨는 “국내에서 ‘왕조’라는 타이틀이 붙은 건 해태가 처음이다. 그만큼 잘했고 인기도 좋았다”며 “야구 성지 광주에서 무등경기장이 가지는 의미는 남다르다. 철거 위기 상황에서도 시민들이 반대를 외치지 않았다. 정치·경제적으로

소외됐던 호남인들에게 해태는 유일한 ‘응어리 분출구’였다”고 회고했다.

지난 2013년 10월4일 기아 타이거즈와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를 끝으로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 홈구장 타이틀을 넘긴 무등경기장은 이후 기능 축소·건물 노후화 등으로 철거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광주 시민들은 ‘무등경기장의 역사성을 보존하라’고 외쳤고, 광주시는 2016년 주민설명회·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2018년 전면 리모델링에 나섰다.

해태 타이거즈의 응원가 ‘목포의 눈물’

을 회상하며 5·18민주화운동의 비극을 이겨냈다는 이들도 있었다.

배부성(73)씨는 “해태의 홈구장이었던 무등경기장은 흥흥한 사회 분위기 속 숨통을 트이게 해준 곳이었다”며 “끔찍한 5·18을 이겨내자며 모두가 ‘목포의 눈물’을 부르곤 했다. 응원가였지만 우리에게 ‘아우상’ 그 자체였다. 재개장 된 경기장에 와보니 모두가 하나됐던 그 순간이 생각난다”고 전했다.

가수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은 망국의 한을 표현한 노래로, 80년대 암울한 시절

을 보냈던 호남민들의 애환이 담긴 노래다. 광주 시민들은 야구라는 매개체로 울분을 표출하고 해소했던 셈이다.

이날 이벤트 경기에 참가해 선두 타자 출루에 성공한 이승재(13) 선수는 “경기장 도착 전 부모님한테 이곳이 어떤 역사를 지닌 곳인지 전해 들었다. 그래서 더욱 타석에서 멋진 안타를 치고 싶었다”며 “다행히 첫 타석에 그 바람을 이룰 수 있게 돼 다행이다. 부모님도 몹시 기뻐했다. 평소 광주에 경기장이 없어서 화순 등으로 경기를 나가곤 했는데, 앞으로 이곳에서 더욱 많은 경기들이 치러졌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유종열 화정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은 “프로야구선수를 꿈꾸는 많은 아이들이 오늘의 경기를 몹시 기대했다. 개인적으로도 사라질 뻔한 곳이 이렇게 재개장 돼 남다른 기쁨을 느낀다”며 “평소 원정경기를 다니곤 했는데, 이제 광주에도 건실한 구장이 생겨 다행이다. 앞으로 이곳이 유소년·사회인 야구 성장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해태의 상징 ‘검빨 유니폼’은 광주민의 애환이 담긴 중요한 추억이다. 그 홈구장이었던 무등경기장 또한 마찬가지”라며 “오랜 시간 끝에 (경기장에) 놀거리·즐거거리를 마련해 재개장하게 됐다. 앞으로 무등경기장이 시민들의 쉼터이자 세계적인 야구인을 꿈꾸는 미래세대들에게 훌륭한 체육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전해연 인턴기자

이주호 “교육과정 내 다루지 않은 내용 수능 출제 배제”

사교육비 경감 방안 지연 사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도 사교육비 경감 방안이 늦어진 데 대해 사과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공정 수능’ 지시는 ‘쉬운 수능’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고 거듭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

정협의회에 참석해 “지난 정부가 방치한 사교육 문제, 특히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모두 힘든 와중에 학원만 배불리는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대통령이) 이 문제 지적했다”며 “신속하게 대책을 내놓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수능’이 교육과정 내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시스템을 고도화할 것”이라며 “대형학원의 과장광고 등 학원의 큰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 학부모가 안심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학교 교육을 정상화, 사교육 수요별 맞춤형 대응을 하는 방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 부총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관련기사 6면 서울=김선욱 기자

No.1 Premium Balance Golf Ball

단 하나의 진짜

밸런스 라인

엑스페론